

"미치광이 같은 트럼프, 알고 보면 '일석삼조'로 목표 달성하는 전략가이다"

'갈지자'로 말 바꾸고 '복비' 다그치며 '틱톡' 처리놓고 '미치광이' 짓 트럼프
실상은 中 상승세 꺾고 美 IT기업들에 선물주고, 再選 유리한 국면 조성 행거
자기 '패' 숨기고 상대 뒤흔드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일삼는 희대의 저급(低級) 정치인인가. 아니면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허풍과 연막 전술을 펴는 전략가 유형인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올해로 집권 4년째인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호불호(好不好)'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트럼프의 '가벼운 입'...실수인가, 의도인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사의 모바일 동영상 앱 '틱톡' 처리를 놓고, 트럼프의 '가벼운 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IT 사업가 장이밍(張一鳴·37)이 2016년 9월 시장에 내놓은 '틱톡(Tik Tok)'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에 음악을 얹어 지인과 공유하는 앱이다. 특히 10~20대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모으며 가입자를 급속도로 늘려 소셜미디어(SNS) 세계 최강자인 페이스북을 바짝 위협해 왔다.

지난달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간다고. 틱톡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격 포문(砲門)을 열었다. 이에 틱톡은 같은 달 21일, "현재 1500명인 미국내 고용 인력을 앞으로 3년 안에 1만명까지 늘리겠다"며 물러섰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기는 틱톡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깜짝 개입' 했다. 그러다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금세 말을 뒤집었다.

"틱톡 사용 금지"에서 "9월 15일까지 허용"...3일만에 말 바뀌

이달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는 전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MS의 틱톡 인수는 45일 후인 9월15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점에 미국에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MS의 CEO에게 '대가(代價) 지불'을 요구했다는 대목도 공개했다.

"나는 (나델라 MS CEO에게) 만약 당신이 틱톡을 산다면 가격(거래액)의 상당부분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와 MS)는 집 주인과 세입자 관계와 비슷하다. 임대계약 없이 세입자는 아무 것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키머니(key money)'라든가 무엇을 지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50년 넘게 '부동산 업자'였던 트럼프가 거래 대가로 일종의 '복비'를 받으려 한다는 조롱성(嘲弄性) 분석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그의 '틱톡' 발언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익(公益)적 대의(大義)에 충실했는가? 아니면 못된 장사꾼 습성으로 사익(私益)을 추종한 것이었나?

'갈지자' 행보에다 "MS, 틱톡 인수하면 '복비' 내라"

그의 발언이 낳은 확실한 후폭풍은 '틱톡'의 기세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위축됐다는 점이다. 틱톡은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제치고 세계 최다(最多) 다운로드를 기록한



신흥 강자(強者)이다. 1억명의 미국 이용자를 포함해 출시 4여년만에 세계 150여개국에 8억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확보했고, 접속자 수 기준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이은 세계 4위에 올랐다. 틱톡이 화웨이(華為)와 더불어 중국 IT 굴기(崛起·우뚱 섬)의 양대 상징으로 불린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틱톡은 언제든 미국 비즈니스가 중단될 수 있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 처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흥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그 결과 MS를 비롯한 어느 미국 기업이든 틱톡을 당초 시장 가치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몇마디 압박 발언으로 '중국산(Made by Chinese) 소셜미디어 앱 가운데 사상 처음 세계적 인기를 얻은 '틱톡'이 무력화되고, 그 예봉(銳鋒)이 꺾인 것이다. 동시에 그의 '틱톡' 때리기는 화웨이·ZTE 같은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웨이보·메이투·QQ뮤직 같은 중국 소프트웨어들의 미국 및 세계 시장 퇴출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도 했다. 중국과의 '디지털 냉전'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확실하게 기여한 셈이다.

세계적 인기 얻은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말 한방으로無力化

트럼프의 발언 후 미국 IT 업계가 활황세를 보이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도 주목된다. MS는 틱톡 인수에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의 10~20대를 직접 소비자로 확보해 B2C 사업 활성화와 온라인 광고수입 급증으로 수십년 숙원을 풀고 사세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

이런 호재(好材)로 MS의 주가(株價)는 8월 3일 하루만에 5.6% 급등했고, 거래일 하루 만에(7월31일은 금요일, 주말 휴장 후 월요일인 8월3일 개장) 시가총액이 900억달러(약108조원) 불어 세계 2위 기업(시가총액 기준)이 됐다.

'틱톡'을 닮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 '릴스(Reels)'를 이달 5일 미국·일본 등 50여개국에 출시한 페이스북도 6일 하루 주가가 6.5% 치솟았다. 틱톡과 비슷한 모바일 동영상 앱인 미국 '트릴러(Triller)'는 지난 주말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가 1년 전 보다 20배 급증했다. 틱톡이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IT기업들의 실적 호조 및 실적 기대감 상승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이달 6일(현지

시간) 1971년 출범 이후 종가(終價)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1000선(線)을 돌파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포브스' 등 미국 매체들은 "유명 크리에이터(콘텐츠 생산자)들이 9월15일 이후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틱톡'에서 빠져나와 '릴스'나 '트릴러'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트럼프의 발언으로 MS와 페이스북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스닥 사상 최초 1만1000 돌파...MS, 하루만에 108조 원 시가총액 급증

실사 MS를 위시한 미국 기업들의 틱톡 인수가 결렬되더라도, 미국 경제나 IT 업계로서는 확실히 '남는 장사'를 하게 된 것도 트럼프에게는 긍정적이다. 한 IT 전문가는 "미국 IT 기업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때리기'에 고마워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수많은 미국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틱톡 인수 우선권'을 트럼프가 '사실상 허용'한 부분이다. 물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경우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反)독점법 조사에 응하고 있어 인수전에 뛰어들기 어렵다.

하지만 MS의 창업자로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MS 지분의 1.36%를 소유하며 MS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빌 게이츠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 대표적인 친중(親中) 기업인이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들을 모두 직접 만났고, 올 7월 영상으로 진행된 시진핑 총서기와의 기업을 정상회담에 미국인 중 유일하게 초청됐다. MS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방화벽 구축 작업을 적극 도와주었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은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장관은 이달 3일 MS의 틱톡 인수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MS가 틱톡을 인수할 경우, MS는 중국내 자산을 처분(divest)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S 총매출에서 중국 사업 비중은 2% 미만인 만큼, 선택은 MS 경영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

"복비"는 '내가 큰 도움 줬으니 제대로 행동하라'는 정치적 메시지"

어쨌든 '트럼프의 배려' 덕분에 MS는 틱톡을 '이주 관장은' 가격에 인수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11페이지에 계속)



▲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최고경영자(CEO)/웨이보 캡처



▲ 중국 베이징 시내에 있는 바이트댄스 본사 모습



▲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권 시장 거래 모습